

“민주정부 4기 이룩 최선”

김윤덕 의원 · 전북도민 3만6000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과 함께하는 3만6000여명의 전북도민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경기도지사)를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김윤덕 의원과 대표들은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제4기 민주정부를 이재명을 통해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구 180만명이 무너진 전북은 머지않아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은 소멸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전북과 지방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했던 시절 소년 노동자로 일하면서 공부한 이재명은 힘없고 가난한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라며 “힘있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과 함께하는 3만6000여명의 전북도민 대표들이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개혁을 이루고, 힘없는 서민과 지방에 희망을 만들어 줄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하는 3만여 전북도민들은 “이재명을 통해 희망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미래 후손들에게 살만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포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전북 현장회의서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전북도의회 의총 회의실에서 이낙연 캠프 전북 현장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 농어업인 · 청년 대학생들 “우리도 이재명 지지”

전북 농어업인 1000명

전북 농어업인 1,000명이 15일 부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천적으로 농어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농어업인의 애환에 귀기울이고, 농어업인의 입장을 확실한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4일 이재명 후보가 전북공약에서 밝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육성과 해수



15일 부안에서 열린 전북 농어업인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

유동확대를 통한 새만금의 친환경개발, 농업용수대책은 농어업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정책이다”면서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의 조속한 인프라구축을 통해 미래 중심지로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대학생 1111명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대선 경선이 오는 28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광대학교총학생회장 등 대학생과 청년 1111명이 전북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청년 대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선구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가장 깊이 인식해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



15일 전북도의회 앞마당에서 열린 청년 대학생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

는 이재명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지역농산물 활용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

도의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지원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개선 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 지난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4조 9,8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원료를 활용해 기능성식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한국식

품산업플러스센터장인 배민정 부장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인허가 요건과 유사한 기능성식품 인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원료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건강기능식품 개발인정절차 중 수입원료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능성표시제를 도입하고 국산 원료 중심으로 원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추, 콩, 양배추 등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발효시켜 추출한 산화질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정용섭 명예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자로 나선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 정승일 본부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천연생물자원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식품산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의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원광대학교 김민선 학장은 “휴먼에노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산화질소의 효능은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산화질소대사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10여개 대학과 전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수는 전국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전국의 2.1%로 나타나 도내에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전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도내 식품업체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농생명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급증’

지난해만 5498명 3년새 2배 이상 늘어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 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정보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있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 인원이 21명인데 비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만7,547명에서 2020년 8만9,399명으로 3년새 3만3,392명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 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최영심 도의원, 추석 맞아

어르신 위한 도시락 마련 동참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추석을 맞아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마련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지난 14일 최 의원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그날날 봉사단체에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잔치에 함께했고, 그날날은 이를 사진봉양에 의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한 예정이다.

최 의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온기가 담긴 명절도시락을 준비하려 한다”며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장보기와 음식 장만을 시작해 오는 18일에 혼자계시는 어르신들 택으로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매번 주저 없이 기부해주시는 기업과 함께 애써주시는 봉사단체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